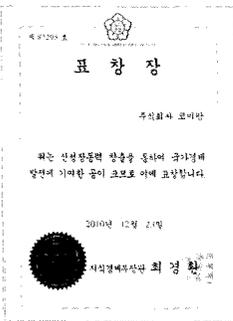


(주)코미팜

제7회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우수상 수상



(주)코미팜(대표이사 문성철)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충무로 매경미디어센터에서 MBN·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제7회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은 지난 한 해 새로운 성장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데 앞장선 기업들에 수여하는 것으로 (주)코미팜은 앞으로도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하제일사료

KOPET에서 닭고기 이용한 애완식품 선보여



천하제일사료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의 애완동물 산업박람회인 '2010 국제 애완동물/용품박람회(이하 KOPET)'에 닭고기를 이용한 애완식품을 선보였다.

이번에 처음 참가한 제일사료는 (주)하림의 '신선한 닭고기'로 생산한 애완식품으로 참가해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1962년부터 국내 축산업을 선도해 온 제일사료는 오랜 기간 동안 다져온 동물영양학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배합사료 전문회사로 최근 하림중앙연구소로 애완식품 전문 연구에 박차를 가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신선함과 웰빙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 국내에서 직접 제조하고 판매하는 믿을 수 있는 애완식품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슈슈(Chou Chou : 귀엽고 사랑스러운 동물이나 사물을 부르는 애칭)는 신선한 하림 닭고기와 엄선된 원료로 기호성과 영양에 초점을 맞춰 차별성을 준 사료로 마켓에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호주산 양고기를 주원료로 사용한 뉴트리웰(Nutriwell : 뉴트리션+웰빙의 합성어)은 애견의 알레르기 발생을 줄여 주는 기능성 사료로 주로 동물병원과 애견샵에 유통된다.

이날 슈슈와 뉴트리웰은 많은 애견인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박람회 첫 참식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자신의 반려동물과 함께 박람회를 관람하는 방문자의 특성을 고려한 대형 포토존은 관람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평면을 입체형태로 재구성해 분주한 박람회장을 거실과 공원의 공간으로 꾸며 재미있는 사진 연출이 가능했다.



(주)우성사료

▶ 2011년 임원 보직변경 및 정기 승진인사 발표



표광수 상무

(주)우성사료(대표이사 지평은)는 지난해 12월 16일 2011년 임원 보직변경과 정기 승진인사를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구제역 확산과 어려운 축산현안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2011

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출발하자는 경영진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평가다.

이 밖에도 부장 승진자 7명을 비롯해 폭넓은 정기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주요임원 보직변경〉

- 본사 영업본부장
표광수 상무(전 제2사업본부장)
- 제2사업본부장
조성복 이사(전 제3사업본부장)
- 제3사업본부장
김동운 이사(천안/서울 지구본부장)

▶ 구제역 방역활동과 나눔으로 한 해 마무리

(주)우성사료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활동과 나눔으로 지난 한 해를 마무리했다.

(주)우성사료는 연말과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모든 공식행사를 취소하는 대신 구제역 방역활동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는 한편 힘들고 소외된 곳을 위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3천2백만 원과 축산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 2천만 원을 충남대학교 수의학에 전달하며 훈훈한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비상방역단을 가동하고 있는 (주)우성사료는 구제역 차단방역에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안전한 제품 공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원천적으로 공장 내 차량진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사료원료와 완제품을 운송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고압 분사 소독기를 이용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장의 내·외부는 1일 1회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든 영업사원과 사료운송 기사에게 개인 소독 세트(방역복, 비닐장화, 위생장갑, 마스크, 휴대용 소독기)를 지급하여 차량 내부와 인체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영업소에는 고압 소독기를 설치하여 방역을 하고 있다.

한편 (주)우성사료의 영업사원들은 사료판매 활동 보다는 방역 활동을 지원하거나 구제역과 관련된 정보를 고객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구제역 확산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을 갖는 고객들을 위해 이메일과 휴대폰 SMS를 이용해 발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농가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우성사료 관계자는 “구제역 상황이 하루빨리 종

식되어 축산업이 안정을 찾기를 바란다”며 “더욱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것과 차단방역을 위한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생물자원

▶ 사내 사회공헌팀 발대식 거행



두산생물자원(대표이사 박근호)은 지난해 12월 10일 사내 사회공헌팀 안다미로의 발대식을 거행했다.

단장인 박근호 대표이사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안다미로는 전 직원이 매월 십시일반 모금을 진행하고 있으며, 팀원들이 모은 성금을 기반으로 주변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들에게 직접 봉사활동을 시행할 것이다.

‘차고 넘치도록 풍부하다’라는 뜻을 가진 안다미로는 두산의 인재철학인 2G정신, 즉 Growth of People, Growth of Business에 맞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 및 청소년 또는 다문화가정의 자립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자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두산 그룹은 이미 ‘사람이 미래다’라는 철학으로 인재 양성을 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 공헌을 통해 두산생물자원은 자체적인 인재 육성과 기업의 발전에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인재성장과 자립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

▶ 신년 경영전략 발표회 성료



글로벌 초일류식품종합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해 (주)트루라이프 · 서부사료(주)(회장 정세진)는 지난해 12월 10일 일산 웨스턴빌딩 대강당에서 ‘2011 경영전략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신년 그룹 전략 목표를 ▲보증할 수 있는 식품생산 체계 운용 ▲식품사업 확산 ▲해외사업 활성화 ▲그룹사 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으로 확정하고, 4개 본부 및 15개 팀, GMG 종돈과 웨스턴 사관학원, 웨스턴 레포피아 등 관계사의 2010년 사업현황 및 새해 경영계획

에 대하여 공유했다.

서부그룹은 특히 2011년 그룹 경영방침에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선도경영 실현'을 추가하고 브랜드력 및 로열티 고객 확산, 교육·레저 사업 활성화 등 성과지향의 기업문화를 만드는데 주력하기로 다짐했다.

정세진 회장은 "우리 구성원 모두 정교하게 수립한 경영목표를 꼭 달성하리라는 의지를 갖기 당부한다"고 밝히며 "Plan-Do-Check-Action 원칙에 따라 계획을 실천하고, 그 성과를 측정/보완하는 등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적으로 기부는 물론 나눔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 186명의 임직원들이 매일 자발적으로 정기 기부 중에 있다고 한다.

CJ도너스캠프는 소외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나눔터'로 '쉽고 즐거운 나눔'을 모토로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그룹 홈 등에서 아이들을 위해 애쓰는 현장 교사들이 직접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면 후원자들이 그중에서 원하는 제안서를 선택해 기부한다.

교사들이 제안하는 교육 프로그램 범위는 학습지도, 예술, 현장체험, 체육, 심성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이외에도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좋은 아이디어도 늘 눈과 귀를 열어 두고 있다고 한다. 후원자들은 자신의 관심 분야나 지역, 기간에 따라 돕고 싶은 교육제안서를 쉽게 찾고 기부할 수 있다.

또 기부와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후 후원에 대한 감사노트, 학습효과에 대한 메시지 등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 받는다. 온라인을 통한 투명한 사랑 나눔이 CJ도너스캠프의 목표이기 하다.

특히 CJ나눔재단은 후원자들의 사랑을 두 배로 키워주기 위해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운영하고 있다. 한 후원자가 공부방 프로그램에 1,000원을 후원하면 CJ나눔재단이 1,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CJ제일제당

'CJ도너스캠프' 통해 기부 및 나눔활동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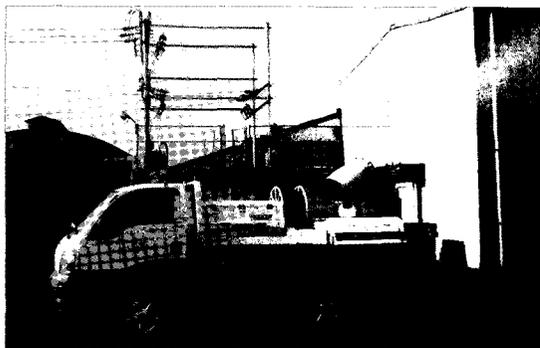


최근 기업들은 이익추구를 넘어 사회공헌활동(CSR)에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CJ제일제당 사료BU(BU장 이병하)가 차별화된 사회공헌활동으로 업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

CJ제일제당 사료BU는 2005년 이래로 CJ그룹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CJ도너스캠프를 통해 지속

구제역 발생 관련 방역대책반 구성

CJ제일제당 사료BU는 구제역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고 방역강화를 통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비상체제로 임하고 있다.



CJ제일제당 사료BU는 구제역 발생소식과 함께 신속히 방역대책반을 구성,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현장 대응책을 마련했으며 영업·공장·내근인력이 한몸이 되어 고객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구제역 대응메뉴얼에 따라 현 상황을 심각단계로 규정하고 현장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방역전문차 운용(2대) ▲생석회 지원 ▲방역세트 제공 ▲방역의식 고취 활동 ▲개인방역 및 공장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실시를 하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CJ방역전문차는 차량자체 자동 방역 시스템 기능을 완벽하게 갖춘 특수 제작된 일체형 4륜구동 방역전문차다. 방역전문차는 소독 제재 분사거리가 30m나 되며 소독제재가 미치지 못하는 곳은 200m짜리 호스릴을 활용해 구석구석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뛰어난 기동력으로 광범위하고 험준한 지역에서도 신속한 방역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CJ방역대책반은 우수한 성능의 방역전문차를 통해 예방적 방역차원에서 현장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구제역 조기 종식을 위해 기업의 소명을 다하고 있다.

CJ방역대책반의 황성윤 마케팅팀장은 “축산농

가가 현재 힘든 고초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주)맛있는 생각

▶ 굽네치킨,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소녀시대로 유명한 오븐구이 치킨전문 프랜차이즈 기업인 (주)맛있는 생각(대표이사 홍경호)이 지난해 12월 1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포춘(FORTUNE) 일하기 좋은 한국기업대상’에서 ‘일하기 좋은 경기도 10대기업 중소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또 홍경호 대표이사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최고경영자상’을 동시에 수여받았다.

굽네치킨은 가족친화경영과 직원의 다양한 복리혜택 등을 인정받았다.

한편 일하기 좋은 기업은 신뢰경영을 실천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쌓아가고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 제도로 한국은 지난 2002년부터 대한민국 훌륭한 일터를 선정해 왔다.